

광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좌초 위기

학부모들 극찬한 사업...25만→30만원 인상 뒤 5개 자치구 분담 거부
광주시교육청, 2년 째 예비비로 충당...내년부터 사업 추진 못할 수도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했던 광주시의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023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기존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5개 자치구들이 적게는 1000만원 대에 불과한 추가 분담금을 재정난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수년째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해 온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타 기관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며 5개 구에 미지급 예산과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1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2024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광주시와 시교육청, 자치구, 시의회,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 교육협력지원사업(27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교육협력지원사업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광주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협력사업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일정 지원 분담률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협력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신입생 입학준비금 분담률을 놓고 위원들간 이견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이 5개 자치구의 분담률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4만여명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분담률 시 25%, 구 20%, 교육청 55%)을 전국 최초

로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상환기 등을 반영해 5만원 인상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5개 자치구가 2년째 인상분 5만원에 대한 추가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임시 예산으로 자치구 미납액을 감당해 온 광주시교육청도 "더 이상 회계상 근거도 없는 이유 등으로 7억원에 가까운 인상분을 마면성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총 104억 4000여만원이 투입됐는데, 시 교육청만 중·고교 인상분(5만원)을 반영한 57억 400여만을 편성했을 뿐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7억원에 가까운 인상분을 마면성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임시로 마련한 뒤 학부모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그나마 2024년 예산은 광주시가 3억원 규모의 인상안을 반영해 총 재원분담금 24억6400여만원을 모두 집행한 덕분에 일부 숨통이 트였지만,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올해 각 구별 미면성 예산을 보면 ▲동구 1793만원(총 재원분담금 1억2300만원) ▲서구 4116만원(3억1100만원) ▲남구 6114만원(4억1800만원) ▲북구 86456만원(6억3000만원) ▲광산구 8585만원(6억3100만원)으로, 각 구별 재정 대비 분담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시 교육청은 올해도 5개 자치구가 미면성한 예산 3억여원을 떠안은 상태로, 지난 2년간 평균 예산만 10억원에 이른다. 5개 자치구는 2025년 예산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인상분 추가 분담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학부모는 "지역구민들 호감 사는 선심성 사업에는 돈을 펍펍 쓰는 구청들이 1년에 수천만원에 불과한 사업비조차 부담하지 않아 학부모의 사랑을 받는 입학준비금 제도가 사라진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5개 자치구의 재정난은 핑계일 뿐, 광주시 주도도 인상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 성격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광주시는 2022년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5만원 인상 결정 당시 5개 자치구는 물론 시교육청과도 별다른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은 정치적 의견이나 상황은 배제하고 각 기관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원분담률이 지켜져야 하며, 입학준비금 5만원 인상도 불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면서, "교육지원심의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사업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새로운 교육협력사업들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힘겨워도 추석은 추석...풍성한 과일시장 9일 광주시 서구 중앙동 서부농산물시장 청과물동에서 사과와 배 등 제수용 과일이 경매되고 있다. 올해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제수용 과일 물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날 기준 광주시 사과(홍로·상품) 도매가는 10kg당 8만 2000원, 배(신고·상품)는 15kg 당 6만 2600원으로 지난해 추석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각각 5.7%, 2.6%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에 전기료 폭탄...8월 평균 7520원 더낸다

주택용 전기 가구당 사용량 9% ↑
요금 6만3610원...상승률 13%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라 고지된다. <관련기사 3면>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작년보다 13%(7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



7000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이보다 9% 증가한 465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약 1만8000원 오른 9만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인상 폭은 22.3%에 달한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데에는 한 달 내내 이어진 폭염과 에어컨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난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달 열대야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우리동네 랜드마크 모두의 도서관 - 전주 ▶18번



굿모닝 여행 - 목포 로컬브랜드·맛집 ▶19번

타이거즈 전망대-KIA 우승 카운트다운 ▶22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차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25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